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식 제4권

사랑의 길을 걷다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의 발자취

우리는 작은 사랑을 찾아
높고 낮은 곳을 찾아다니며
세상 곳곳의
모든 존재와
작은 사랑을 나눕니다.

만나거나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던 이들에게 다정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칭하이 무상사는 사랑의 길을 걷자는 메시지대로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도주의자이자 예술가, 영적 지도자인 그녀의 사랑과 도움은 모든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 전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어려운 이들과 노숙자, 에이즈와 암 연구 센터, 미국 참전 용사, 불우한 노인, 심신 장애인, 난민, 그리고 지진·홍수·화재 등 천재지변을 당한 이재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녀의 친절에 축복을 받은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의 동물 역시 그녀의 무한한 자비심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자선 활동 속에서 우리는 이 자상한 여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자비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국제협회는 그녀의 사랑을 본받아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랑이 우리 의식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때 우리는 뭔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의 힘과 무한한 사랑, 창조성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초기 시절

칭하이 무상사는 어울락 중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병원의 환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돕고 다친 동물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그녀는 그곳에서 적십자사의 번역 일을 하며 계속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곧 아픔과 고통이 모든 문화 속에,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책을 찾는 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독일 의사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별이 두 사람 모두에게 대단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남편은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영적 깨달음을 찾아 2년이 걸린 구도의 길에 올랐습니다.

히말라야 순례

마침내 그녀는 인도의 히말라야 깊은 곳에서 깨달은 스승을 만나 내면의 빛과 소리를 관하는 명상 기법인 관음법문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녀는 얼마간 수행한 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신실한 요청에 따라 칭하이 스승은 관음법문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내면을 성찰해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관음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큰 성취와 행복, 평화를 얻었습니다. 얼마 후 미국과 유럽·아시아·호주·아프리카·남미, 그리고 주요 기관에서 칭하이 스승에게 강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인도적인 도움을 베푸는 숭고한 귀감이 되고 있는 칭하이 스승은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관음법문 명상을 통해 자생적인 재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림과 창작 예술품(아름답고 정교한 등불과 음악, 시 등), 미적 감각이 뛰어난 보석·의상 디자인을 통해 당신이 접한 사람들과 문화의 내적·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1995년, 대중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의상 디자인은 런던·파리·밀라노·뉴욕을 순회하는 국제적인 패션쇼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이런 예술 작품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칭하이 무상사의 자선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재정원이 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신의 자녀를 돕는 그녀의 고귀한 임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인정과 스승님의 꿈

칭하이 무상사는 그 어떤 형태의 인정도 바라지 않지만 전세계 많은 정부와 개인 단체들이 그 사심없는 지원을 인정해 다음과 같은 수많은 상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평화상, 세계 영적 지도자상, 인권 신장상, 세계 시민 인도주의상, 인류를 위한 뛰어난 공익 봉사상, 2006 구시 평화상, 로스 앤젤레스 음악 주간 표창장, 2006년 제27회 텔리상 은상 등등. 미국에서는 2월 22일과 10월 25일을 ‘칭하이 무상사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하와

이 호놀룰루 전임 시장인 프랭크 파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자의 빛이며 모두를 위한 자비의 천사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 데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분입니다. 역사상 많은 위인들에게 꿈이 있었듯이 그녀 또한 그렇습니다.

“난 모든 세상이 평화로워지길 꿈꿉니다.

나는 모든 살생이 멈추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아이가 평화와 조화 속을 거닐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국가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도와주길 꿈꿉니다.

나는 이 행성이 파괴되지 않길 꿈꿉니다.

수억 수조 년이 걸려 만들어진 이 행성은 대단히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나는 이 행성이 평화와 아름다움, 사랑 속에 지속되기를 꿈꿉니다.”

머리말

칭하이 무상사는 강연하실 때
어려운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평이한 구어체만 사용하십니다.
책을 출판함에 있어서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제자들은
스승의 가피력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범부의 두뇌로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않았습니니다.

1장

수행의 최대 장애(1)/ 청정대해중보살(2)

1986. 12. 17. 포모사 타이베이

악기는 본래 내면의 미묘한 소리를 잊지 않도록 대중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면의 소리는 외면의 소리와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법화경』에서 말하기를 “보살의 경지에 이르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귀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천당과 지옥도 볼 수 있으나 수많은 등급의 천당과 높은 경지를 보더라도 눈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의 진동력이 일반 범부의 진동력과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입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수행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간혹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체험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생에도 수행한 적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그런 능력과 과거의 영향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 소리는 반드시 수행을 많이 해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리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싶을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문한 사람은 다릅니다. 소리를 듣고 싶으면 언제나 소리가 존재합니다. 그 소리가 이미 우리의 재산이 되어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레 듣게 되었다가 갑작스레 끊어지게 되는 소리라면 아직 우리의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소리가 아니니까요.

입문을 한 사람은 듣고 싶을 때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보살의 등급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법화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입문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불보살이나 대수행자가 세속의 악기로 내면의 소리를 모방하여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귀를 일깨우기 위해서였지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지혜로워지고 ‘참 스승’을 찾아 수행하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기도 아주 유용합니다. 만일 몇몇 악기가 내면의 소리와 유사한 음악을 연주한다면 다소 도움이 되겠지요. 등급이 높지 않은 사람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선禪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참선을 하던 한 법사가 어느 날 갑자기 옆방에서 치는 종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큰 깨달음이었는지 작은 깨달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깨달음은 얻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악기는 사람들의 내근內根을 일깨우고 각성시키는 데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의 등급을 좀더 높이고 지혜를 좀더 증진시켜 훗날 큰

스승의 가르침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만일 자신의 수행에 의지하여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 한다면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첫째는 수행을 오래 한 뒤에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소리가 비교적 높은 소리이고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고 어떤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하는지 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겠지요.

소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처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마魔의 소리도 있고, 진짜인 소리가 있는가 하면 가짜인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수행한다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일이며 반드시 ‘참 스승’을 찾아야만 하지요. 참 스승은 우리에게 법을 전해 줄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부터 법을 전해 받으면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교적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돌봐 주며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어떤 소리가 높은 세계의 소리이며 낮은 세계의 소리인지, 또 들으면 안 되는 소리는 어떤 소리고 위험한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등을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석가모니불은 『법화경』과 『능엄경』이 모든 경전 중의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나 역시 그의 관점에 동의하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경전에는 수행에 관한 것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화경』에는 수행의 체험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되어 있어서 『법화경』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체험과 『법화경』에서 말한 것이 같은지 다른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사들이 자신들의 법문이 최

고라고 떠들어댈 때,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이 가르치는 법문이 우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법문이 제일 높은 법문인지 증명해 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법화경』은 확실히 최고의 경전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번 훑어보세요. 석가모니불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화경』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라. 그 경전에 담긴 오묘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한다면 아주 큰 업장을 짓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법화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 읽어 보세요. 부처는 그 경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부는 내면의 체험이나 보살의 체험을 알 수 없으며 내면의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백 년 동안 수행한다 해도 아무런 체험도 없을 것이며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설할 때 오천명 이상의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 그리고 재가 보살들이 설법회장을 떠났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을 믿지 않았고, 그런 고등한 법문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그런 높은 수준의 법문이 진짜로 있었다면 왜 여태껏 들어 보지 못했겠는가?’ 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부처가 『법화경』을 설할 때 그 자리를 떠난 비구와 비구니는 아마 부처의 제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도 대단히 많은 출가자가 있었을 테니, 출가자라 해서 모두가 다 내 제자도 아니고 나를 따라 똑같은 법문을 수행하는 것도 아닌 지금의 나의 상황과 똑같았겠지

요. 인도에는 아직도 출가자들이 많지만 그들 모두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내면의 미묘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도 보살의 등급이 아닌 것입니다.

예컨대 나는 가끔씩 특별 인쇄물을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안에는 체험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언급되기도 합니다. 원래 나는 체험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입문한 제자에게 보내는 인쇄물에 가끔 수행상의 체험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인쇄물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외부 사람에게 보여 준다면 그들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인쇄물을 복사해도 새로운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어찌다 여러분이 친척이나 친구에게 가져다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준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여러분의 수행을 위해서, 그리고 체험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만 나누어 준 것이지요. 이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광고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수천수만 부씩 복사해서 곳곳으로 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줄 수 없다.”라고 한 말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이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법화경』을 설했던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높은 등급에 있는 보살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설법한 것이 외부 사람들에게 설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사람

들은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무슨 소리를 듣는다는 것인지, 무슨 천당을 본다는 것인지, 어떻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통 사람이 보살이 될 수 있는지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비방하고 그로 인해 아주 큰 업장을 짓게 된 것이지요.

내가 복사해서 나누어 준 특별 강의도 마찬가지로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입문한 후에 스승을 믿기만 하면 서방세계에 갈 수 있으며, 영원히 생사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승의 이 육체를 믿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문을 믿고 스승의 가르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어떻게 계율을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5계(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술 마시지 말 것)를 정확히 지켜야 하고 매일 몇 시간씩 명상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었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규칙들은 철저히 지키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스승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스승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키심)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 길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 이 법문을 비방하거나 공격하게 된다면 아주 큰 업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생사윤회를 선택하고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므로 나 역시 이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지요. 불보살은 다른 사람의 의식에 개입할 수 없으며 중생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둡니다. 이 길은 좋고 저 길은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말해 줄 수는 있지만 어디로 갈지는 반드시 스스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석가모니 당시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보살이 중생을 벌한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 『법화경』을 비방하니 부처가 화가 나서 중생을 벌하려 했다거나 중생을 해칠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불보살은 중생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이 삼계 이내는 여전히 마왕이 지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올라가서 불보살에게 배우고자 한다면 마왕은 여러분이 가도록 해줄 것입니다. 불보살이 이미 여러분을 제자로 받아들였다면 마왕도 더 이상 여러분에게 개입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 스스로 불보살을 떠나겠다는 선택을 한다면 마왕은 즉시 다시 와서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더 많은 번뇌를 만들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스승의 가르침을 위반하거나 스승이 가르친 계율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즉시 스스로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율을 어기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곧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입문을 한 후 계율을 지키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으며, 고기를 먹기 시작한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스승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지는 직접 가서 보면 알 겁니다. 그들의 얼굴은 입문할 때와는 달리 빛을 잃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전과는 다르며, 청정하지도 않고 빛도 없으며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문제를 자초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불보살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빨리 데리

고 올라가 달라며 불보살에게 거둬 간구해 놓고는 오히려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보살이 이곳에 왔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내가 설법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누어 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수행 등급이 높다는 것을 알 경우에는 나누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질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 주지요.

이를테면 병에 걸렸는데 아직 제일 좋은 병원과 가장 뛰어난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이리저리 찾아다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장 뛰어난다는 의사를 만났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그 사람에게 병을 치료하도록 맡기지 않는다면 보통의 의사들로서는 더더욱 방법이 없겠지요. 물론 가벼운 병이라면 가장 뛰어난 의사를 찾기 전까지 여기저기 찾아다닐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병이 상당히 위중할 때는 어서 빨리 최고의 의사를 찾아야만 병을 치료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막상 최고의 의사가 눈앞에 나타난다 해도 그를 원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불보살의 화신과 최고의 법문을 만나기 전이라면 불보살이 언젠가는 우리를 구해 주러 오리라 믿으며 천천히 다른 법문들을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찾았는데도 스스로 거절해 버리고 원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가르치고, 누가 우리를 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러므로 입문한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수행을 하며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말해 버린 것만도 너무 많

거든요. 말하지 말았어야 할 비밀스러운 것까지 말해 버린 적도 있으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엔 말법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불보살의 화신이 온다 해도 중생을 다 제도할 수는 없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당시에도 제도된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법화경』의 「종지용출품從地湧出品」에서 석가모니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갠지스 강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보살들이 각 시대마다 화신으로 와서 땅에서 용출하여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많은 보살들 중에 우리는 왜 반쪽도 보지 못할까요?

보살은 존재하며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살의 화신이 빛나는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화신으로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 보살은 갖가지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화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경전에 써어 있는 것과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준다면 그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우리는 자신의 체험이 경전에 기재된 것과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만일 같다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믿을 수 있겠어요? 또 누가 우리를 믿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방문했던 그 사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의 화신이 와서 병을 고치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등

급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등급이 높지 않더라도 수행해야 하며, 수행의 경지가 높은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체험도 있고 스승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경전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되지 스승의 지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승이 여러분에게 어떤 체험이 있을지 알려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스승이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도 아직 증거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한 스승을 믿는 데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요?

불보살이 이 사바세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신통을 내보일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그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며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스승에게는 대단히 큰 힘이 있으며 그는 보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기도한다면 도와줄 것입니다. 그를 볼 수 없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그는 올 것입니다. 정말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또는 몇몇 문제로 의심이 생길 때도 내면의 스승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지요.

외면의 스승은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없지만 내면의 스승은 무엇이든 모두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볼 수 없다 해도 그에게 말하기만 하면 그는 들을 수 있습니다. 포모사어·중국어·영어 등 어떤 언어로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지요. 외면의 스승은 이 사바세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과거 구도의 힘든 과정에서 완전히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것과 진정한 법문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참스승들에 의해 전해 내려온 이 법문은 우리 내면에 있는 지혜를 일깨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문을 수행하여 대단히 큰 이로움을 얻은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일세해탈—世解脫을 갈망하는 많은 구도자들을 돕고자 스승이신 칭하이 무상사(The Supreme Master Ching Hai)가 세계 각지에서 강연하신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은 생명, 삶과 죽음, 수행과 진리 등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_____

